

광주·전남 지난달 수출 52.8억 달러...15억달러 흑자

반도체·이차전지·백색가전·선박 호조...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 자동차 0.7% 감소...김 등 수산가공품 26% 늘고 석유제품은 부진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백색가전과 선박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광주·전남 무역 수지가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 수출액은 52.8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52.5억달러)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년 같은 달보다 0.3억달러 줄어든 13.4억달러, 전남은 0.7억 달러 증가한 39.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7.9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36억달러)에 견줘 5.3% 늘었다. 광주의 수입은 작년 2월(5.2억달러)보다 2.6% 줄어든 5억달러였지만, 전남이 전년(30.8억달러)보다 6.6% 늘어난 32.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달러 흑자로, 광주(8.3억달러)와 전남(6.6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16.5억달러)보다는 1.5억달러 감소했다.

지자체별 수출 순위에서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4위, 광주는 10위에 올랐다.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0.7% 감소했으나 반도체가 1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중형차(1.1% ↑), 하이브리드차(3.2% ↑) 등에서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디젤 차량이 34.4%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4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과 견줘 9.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수출 단가 상승과 IT 수요 회복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이차전지(80.2% ↑)와 세탁기 등 회전기기(15.1% ↑)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와 세탁기 수출 호조로 광주의 대미(對美)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싱가포르(62.4%)와 대만(1.9%)으로의 수출도 증가로 전환됐다.

전남은 철강판과 선박이 선전했다.

철강판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6.7억달러 실적을 올렸고, '선박 및 부품'은 85.5% 오른 5.1억달러 성과를 냈다.

또 배터리용 첨가제 및 촉매 혼합물(기타 화학공업제품)이 955.1%라는 큰 폭의 증가세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광산물과 농림수산물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2%, 5.8% 감소했지만, 농림수산물에서 과일주스 등 농산가공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김 등 수산가공품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26% ↑)를 보였다.

전남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

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단가 약세, 주요 시장인 중국 내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했다.

석유제품은 전년 같은 달 대비 7.4% 감소했고, 합성수지(-9.4%)와 기초유분(-4.8%)도 줄어든 상태였다.

실 연후와 중국 총질 영향으로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했다. 호주(-0.4%)와 인도(-0.1%), 멕시코(-2.1%) 등 수출도 소폭 감소

선박 수출 호조 속에 라이베리아(230% ↑)와 마셜제도(415.9%) 등 편의지적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또 제트유 수출 증가로 일본(19.4%) 및 필리핀(88.2%)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전 인기 '족발요리집' 오픈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대전지역 유명 족발 판매점인 '족발요리집'의 족발을 선보이고 있다. 족발요리집은 지난 15일 광주점 지하 1층 푸드메뉴에 문을 열었다. 족발요리집은 전통 족발 뿐만 아니라 비빔족발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족발 요리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로는 불향가득 비빔족발(1팩·2만4800원), 전통족발(대자 3만5000원·중자 2만7000원)이 있다. 족발요리집은 오픈을 기념해 3월 말까지 전통족발 구매시 껌대기(1팩)를 무료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지역 기업인 3명 상공의 날 장관상 수상

제 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기업 상공인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1일 63스퀘어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임은태 테라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과 정호영 비오신코리아(주) 전무이사, 배현섭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지원팀장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임은태 대표이사는 산업·생활 오피수와 대기질

을 친환경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 신개념 처리공법을 개발하는 등 다수의 기술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호영 전무이사는 암치료 관련 생물학의 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통합 암치료 프로그램의 구축 및 정착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현섭 지원팀장은 임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노사간 상생 및 화

합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단행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주상인의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내 더 많은 상공인들이 노고를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한 정부 기념일로, 국내 경제의 성장·발전에 공로가 있는 상공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에 사은품

6월까지 커피 교환권 등 증정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오는 6월30일까지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전남지역 타이어프로 매장 이용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2개 구매 시)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3명에게 기아챔피언스 필드 스카이박스(14인용) 이용권을 제공한다.

행사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신제품인 '이노비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해 솔루스 TA51, 솔루스 TA91, 크루젠 HP51, 크루젠 HP71 등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타이어프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달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브랜드 '이노비(EnnoV)'는 사계절(All-season)용 EnnoV PREMIUM, 겨울용(Winter) EnnoV Winter, 롱마일리지용(Long-mileage) EnnoV SUPERMILE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EnnoV PREMIUM은 세계 최초로 전 구격(29개 구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차세대 전기차용 OE 타이어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아 'The Kia EV6'와 폭스바겐의 SUV 모델 'ID.4 (Volkswagen ID.4)' 차량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임...만장일치 추대

2027년 3월까지 회장직 재임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대한상의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시 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25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2021년 24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최 회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연임한다.

관세청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한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상의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대한상의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양문석 제주상의 의장이 최 회장을 후보로 추대하고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해 연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중 처음으로 2021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경제

와 정부·사회 간 소통에 주력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까지 겸해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간 외교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역시 상의 및 도별협의회 회장 상의가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뽑혔다.

양재성 부산상의 회장, 박은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안양과천상의 회장) 등이 선출돼 25대 대한상의 회장과 부회장단 15명이 모두 확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GM 신임 부사장에 김대식 전 기아차 법인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신임 부사장에 김대식(사진) 전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장이 선임됐다.

GGM은 21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부사장에 김대식, 비상무이사에 염규승 전 광주은행 부행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부사장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38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일하며, 현대차그룹 전략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사장은 현장과 정책 기획, 해외시장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규승 비상무이사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광주은행에 입직해 지점장과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부사장과 비상무이사의 임기는 22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GGM 태동부터 함께 해온 박광식 부사장은 이날 오후 이임식을 가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주유소 전남협의회 정기총회 주유소사업 활성화 등 현안 논의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 20일 전남남부 중회의실에서 농협주유소 전남협의회(협의회장 박정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날 총회는 ▲2023년 사업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으며, 주유소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수 협의회장은 "친환경차량의 빠른 증가와 유류소비 둔화로 주유소 가격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농협주유소 사업도 국제 원유가격 및 제품가격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 국내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농협주유소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영농지원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지역본부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전남 관내 NH-OIL 농협주유소는 117개소로 일반고객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AI·3D 스마트싱스 맵뷰 서비스 강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3D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싱스의 '맵뷰'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맵뷰는 스마트싱스에서 주거 공간의 가상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 기기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맵뷰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처럼 라이다 센서를 가진 기기가 집 구조와 크기를 측정해 평면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더 직관적으로 집 구조와 공간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보기 기능도 추가했다.

3D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로 스마트싱스 연결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명, 온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외에 삼성 스마트 TV와 iOS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맵뷰를 볼 수 있게 서비스 기기를 확대한다.

상반기 중에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티'와 '비스포크 AI 콕보' 등 기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승범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적의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콘텐츠 기업 佛출판사와 8억원 제작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1일 지역 콘텐츠 제작 기업 랩툰스튜디오가 프랑스 만화출판제작사 막마(Makma)사와 8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ICON이 지원하는 랩툰스튜디오는 SF, 판타지 장르인 교육용 만화 '아이캔아이두(iCan&iDo)'를 제작하고 있다. 종이책과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중이며 오는 5월 정식 서비스되는 전용 어플 'iCan&iDo Solution'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랩툰스튜디오는 막마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등 유럽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이며, 오는 8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랩툰스튜디오는 아이캔아이두(iCan&iDo)를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확장,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로 다수 국가

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복 랩툰스튜디오 대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아이캔아이두(iCan&iDo)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가 배출한 글로벌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4.86(+64.72)
↑ 코스닥	904.29(+12.84)
↓ 금리(국고채 3년)	3.306(-0.065)
↓ 환율(USD)	1322.40(-17.40)